

주요국제문제분석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2006-35

2006. 12. 1 (수정)



외교안보연구원

최근 중국·인도 관계 동향 및 전망

연구부장 김 명 진

1. 서언

- 최근 중국과 인도가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잠재력이 큰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자 세계 유력 경제지들은 2005년부터 '친디아(Chindia)'란 말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회의기간 중 세계의 이목이 '친디아'에 집중되었던 것도 그만큼 중국과 인도가 21세기 떠오르는 강국으로서 세계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음. 또한 미국계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는 203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인도가 미국·중국에 이은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으며, 도이치뱅크, 모건스탠리 등은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2020년이면 중국과 인도의 GDP가 전 세계의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전쟁으로 인한 불신과 적대감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국경분쟁과 전략적 경쟁·견제 문제가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기는 하나, 양국 모두 세계 최대의 개도국으로서 자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외관계의 유지·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2005. 4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선언을 통해

<목 차>

- 1. 서 언
- 2. 중국-인도 관계 현황
- 3. 향후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변수
- 4. 고려사항

향후
중국·인도 양국은
경제협력과
교류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임...

상호 민감 현안들이 양국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 정치적 합의를 달성함.

- 향후 양국은 경제협력과 교류확대를 통한 실질적 이익 추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상호간에 주요변수들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특히,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의 2006. 11월 인도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교역량을 2010년까지 400억불 규모로 배가키로 하였고, 지역무역협정(R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2007. 10월까지 끝내기로 하는 등 양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추진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기폭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또한, 양국은 국경문제가 관계개선에 더 이상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2005년 합의한 원칙과 범위에 따라 국경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재확인함과 동시, 향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적 협력과 경제협력, 민간 핵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대해 합의함으로써 금년 3월 미·인도 핵 협정 체결 이후 양국관계가 다소 불편해 졌던 것을 해소함.

2. 중국-인도 관계 현황

가. 개요

- 중국과 인도는 1950. 4월 국교수립이후 비동맹 운동을 중심으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1962년 국경문제 충돌로 중-인 전쟁이 발발하고, 캐시미르 지역을 둘러싼 제2차(1965년), 제3차(1971년) 인-파 전쟁에서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계속 소원해지다가 1976년까지 외교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였음.
- 소원해졌던 중·인 양국관계가 2003년 바지파이 인도총리의 방중과 2005년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합의함으로써 선린우호 협력관계가

포괄적으로 발전되기에 이르기까지의 양국관계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음.

- 즉, ① 1980년대와 90년대 초 정상급 고위인사들의 정례적 교류를 통해 양국 최대현안인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 하면서 경제협력과 교역 등 실질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단계,
- ② 90년대 중반 인도 핵문제를 겨냥하여 형성되었던 미-중 연합 제후관계가 98년 5월 인도 핵실험이후 얼마 못가서 미국의 대인도 정책 전환으로 인해 미-인도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상대적으로 인-중 양국관계가 소원해 지는 “전략적 3각 관계”로 바뀌는 단계,
- ③ 2000. 3월 중·인 장관급 안보대화가 시작되면서 민감 현안인 국경분쟁에 대해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양국 모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양국관계의 유지·발전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기로 합의하는 단계임.

나. 양국관계 발전과정

(1) 중·인 전쟁이후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

-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전쟁에서 중국이 점령한 악사이 친 지역과 북동 변경지역(인도의 Arunachal Pradesh주지역)에 대해 현재까지 국경선 확정문제와 함께 국경문제가 민감 현안으로 남아 있으며, 중·인 전쟁이후에도 중국은 1965년과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파키스탄을 지지함으로써 인도를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함. 양국은 1976. 4월 대사급 관계를 재개한 후 1978년 무역재개에 합의하였으며, 1981- 87년간 국경분쟁에 관한 실무급 회담을 8회 개최함.
- 1980년대 말 90년대 초 남아시아 지역은 탈냉전 국제질서 속에서 ① 구소련의 해체, ② 인도의 실용주의적 외교성향 및 경제 개혁 개방, ③ 중국의 부상, ④ 미국의 파키스탄 정책 변경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종래 ‘미·중·파’ 대 ‘소·인’의 냉전적 대결구도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중국과 인도는 1988.12월 라집 간디 총리의 중국 방문 시 Joint Working Group 설치를 통해 국경문제 협상의 틀을 마련하였고,

중·인 양국은
안정적인
관계 유지·발전이
필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

1991. 12월 리붕 총리의 인도 방문, 1992. 5월 Venkataraman 인도 대통령의 중국방문 등 정상급 인사 교류를 계기로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치 대화를 재개함.

- 1993. 9월 라오총리가 중국을 방문, 국경선 평화안정 유지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96.11월 장쩌민 국가주석이 인도를 방문, 양국 국경지역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통제선(LAC)을 인정하며 군사 부분에서의 신뢰구축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함.
- 이와 같은 양국간 관계 증진의 필요성은 냉전종식 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경계가 생기면서 더욱 절실했으며, 나아가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한 전략적 구도 속에서 러시아·인도·중국 3국간의 협력 강조하게 되면서 인도와 중국간 교류는 더욱 확대됨.

1998년 5월 인도가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은
인도 핵실험을
강렬히 비난하고
미·중 양국은
협력을 강화...

(2) 인도 핵실험과 미·중·인도 전략적 3각 관계

- 1990년대 중반 NPT 무기한 연장 및 CTBT 협약 협상 과정에서 인도가 포괄적 핵군축 실현,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철폐, NPT 및 CTBT 불참 등을 주장한 데 대응해, 미국과 중국은 인도를 겨냥한 연합제후관계를 형성함.
- 1998. 5월 인도의 제2차 핵실험이 강행되자 미국이 곧바로 경제·군사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미-인도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일방, 미-중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여 98년 6월 클린턴대통령 방중계기 남아시아에서의 비확산을 강조하고 인·파의 NPT 가입과 CTBT 서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상기 핵실험 2주전 George Fernandes 인도국방장관은 중국을 인도의 잠재적 위협 1순위 국가로 지적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행동과 동맹에 의해 인도가 포위되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또한 핵실험직후 바지파이총리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도 핵실험은 중국에 의해서 야기되는 전략적 위협과 양국간 해결되지 못한 국경문제 때문에 야기되는 불신 분위기, 그리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중국이 지원하고 나섬으로써 인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내세워 핵실험의 정당성을 주장함.

○ 그러나, 인도가 미-중 공동성명에 강력 항의하고 미-중 연합(perceived alignment)에 대해 분노와 반발을 나타내자, 미국 정책 참여 정부관리 및 학계 내에서 인도에 대한 제재조치의 비효율성 논란과 함께 전략적·경제적 측면에서 인도의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활발해 짐.

- 즉 미국 내 친인도 그룹을 중심으로 인도에 대한 비확산 압력 행사가 효율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도로 하여금 중국 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이므로, 인도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인간에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인도의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국익에 유익할 것임을 지적하는 여론이 대두됨.

○ 1998. 7월 Strobe Talbott 미국무차관이 인도를 방문, Jaswant Singh 인도외교장관과 처음으로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졌으며, 이어 수개월간에 걸쳐 전략대화를 진행, 전략적 협력문제, 대테러 문제, 인·과 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에서 양국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되기 시작함.

- 미국은 인도를 겨냥한 미-중 연합 제휴입장에서 벗어나 중·인간에 균형 있는 입장으로 선회, 종전의 남아시아 정책에 큰 변화(a major shift)를 취하게 된 바,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인도를 중국에 대한 대항마 카드(a counterweight card)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케 됨으로써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3각 관계”가 새롭게 형성됨.

중국을 미국의
대인도 협력강화
정책변경을
대중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중국을 겨냥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

(3) 중·인 안보대화 개시 및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 중·인 안보대화는 1999. 6월 탕자쉬엔 중국외교부장초청으로 이루어진 자스완 싱 인도외무장관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처음 협의되기 시작하다가, 2000. 3월 처음으로 장관급 안보대화가 개최됨.

- 중국은 미국의 대인도 협력강화 정책변경이 대중 봉쇄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역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키 위해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 카드”나 “인도 카드” 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과 인도에 대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입장을 선제 취함과 동시에 파키스탄과 러시아와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

시켜 나가는 입장을 취함.

- 양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공동인식 속에 협력 증진과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에 합의함.

- 이어 Narayanan 대통령의 2000. 5월 중국방문, 리봉 전인대상무위원장(2001. 1월)과 주룽지 중국총리(2002. 2월)의 인도방문 등 고위인사 교류를 계기로 안보대화를 계속하여 양국관계 증진을 모색함.
- 양국은 2003. 6월 바지파이 총리의 중국 방문과 2005. 4월 원자바오 총리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국경문제, 전략적 협력문제, 경험문제, 자원 확보문제 등을 포괄하는 “양국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로드맵”과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각각 합의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뿐 아니라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신뢰증진을 위한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킴.
- 특히, 양국은 2005. 11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서로 군사훈련 참관단을 파견한 데 이어 금년에도 상호 군함을 파견해 합동군사 훈련을 계속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북경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신뢰증진을 위해 군사분야 교류를 정례화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최근 군사 분야에서의 관계진전도 가시화되어 가고 있음.

3. 향후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변수

가. 미·중·인도 전략적 3각 관계

미국, 중국, 인도
3국의
전략적 3각 관계는
향후 상당기간
남아시아 지역
정세 향배에
주요 변수로 작용...

- 1998년 인도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인도 3국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한 전략적 3각 관계는 국제정치 현실의 생리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들 3국 각각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향후 상당기간, 특히 인도의 경제력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남아시아 지역 정세 향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인도로서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미·중 상호간에 경계심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자국 이익에 반하는 미·중 연합을 방지하거나 차단하고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인도 입지를 강화시켜나가는 일방, 미국의 대중 전략구도에 인도 참여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적절히 이용, 민감한 현안들, 즉 중국의 대파키스탄 핵·미사일 지원문제, 티벳 지역에 군사력 배치문제, 미얀마에 중국함정 출입 및 도로건설문제 등에 대한 인도 측 우려와 입장을 중국이 존중하고 이해해 주도록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인도는 미국과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는 있겠으나, 중국을 겨냥해 미국과 제휴·연합하는 데에는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으로서는 역내 영향력 확보 및 힘의 균형유지를 위해 중국을 겨냥한 미·인도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차단시킴과 동시 미국으로 하여금 대중 봉쇄 전략을 갖지 말고 인·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을 유지해 주도록 유도하고, 인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긴장 관계가 조성되지 않도록 외교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을 겨냥한 중·인 연합을 구축하게 되면 미·인도간에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는 자연스런 동맹관계가 구축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중국은 1978년 시장경제 도입이후 자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 도모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외교 전략의 기초를 두어 왔음. 앞으로 상당기간 중국 경제발전에 미국의 거대한 시장과 자본·기술·고급 교육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겨냥해 인도와 제휴·연합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미국으로서는 중국견제 카드의 하나로 미·인도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인도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기는 하나, 미국이 의도적으로 나서서 중국과 적대관계를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인·중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독려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미국의 정책 선택에 있어 “중국의 태도”(behavior of China) 변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음.

인도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국은 역내
영향력 확보 및
힘의 균형유지를
위해
미·인도 협력의
강화를 차단...

- 최근 미·인도 핵 협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이 인도를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으로서 “고급 핵기술을 갖춘 책임 있는 국가(as a responsible state with advanced nuclear technology)”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3각 관계, 즉 미국과 인도, 중국 3국간에 지정학적·전략적 측면에서의 협력과 갈등, 견제 동향이 주목됨.
- 즉, 최근 미·인도 협력관계 강화 움직임이 미국이나 인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비쳐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3각 관계(triangular consequences)를 초래할 수 있다 하겠음.

나. 러시아의 대중·인도 전략적 접근 가능성

중국, 인도, 러시아의
전략적 3각
연합관계 구축이
타진되고 있으나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볼때
어려울 것으로
보임...

- 3,380km의 국경을 맞댄 중국과 인도가 무력 대치와 군비 부담을 덜기위해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세계질서 하에서 다극체제를 토대로 한 신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협력에 러시아까지 낀 ‘전략적 3각 연합관계(strategic triangle)’ 구축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러시아·인도·중국 3국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제안이 처음 나왔던 것은 1998년 Yevgeny Primakov 러시아총리가 인도 방문 시 냉전 종식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미국주도 단극체제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면서 균형 있는 세계질서 구축을 주장하면서였는데, 당시 이에 대한 인도와 중국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음.
- 러·중·인 3국 외교장관 회동이 2002. 9월 뉴욕 유엔총회 기간 중 처음 있는 후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3자 대화(trilateral dialogue)로 승격되어 정치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2006. 7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8 정상회의직후 3국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된 바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3각 연합 가능성은 국제정치 이론적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 중국, 인도 3국이 미국을 겨냥해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에는 ‘힘의 균형’에 있어서도 취약한 상황일 뿐 아니라, 3국 상호간의 양자관계들(중·인, 러·인, 중·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들보다 미국과의 양자관계(미·중, 미·인, 미·러)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우세하고 포괄적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그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다. 국경분쟁

- 중국과 인도는 1988년 라집 간디 총리 방중 시 Joint Working Group (JWG) 설치를 통해 국경문제 협상의 틀 마련하고, 1993년 라오 총리 방중 시 국경선 평화안정 유지 협정 체결한 데 이어, 2003년 바지파이 총리 방중 계기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s)를 임명키로 합의, 최근까지 특별대표 회담을 8회 개최함.
- 동 회담을 통해 양국은 실제통제선(LAC)을 기초로 국경을 확정 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인도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중국은 인도의 시킴 왕국의 영유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등 관계개선에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금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인도방문계기 기존 고위급 및 공동실무그룹(JWG)차원의 협의 가속화를 통해 국경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함.
- 양측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 분위기를 활용, 특히 2005년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인도방문 계기 합의한 바 있는 국경문제 해결의 틀과 원칙을 활용하여 국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고지대를 중심으로 실제통제선(LAC)이 불분명한 구역이 있어 국경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중·인 양측의
국경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경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라. 파키스탄 카드

- 최근 캐시미르문제를 위요, 중국이 과거 친파키스탄 입장에서 벗어나 인도측 입장을 고려하여 인-파 간에 균형 있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 캐시미르 현상유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파키스탄의 국방력 강화를 통하여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인도의 패권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기본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봄.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인도

중국과 인도
양국 교역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차세대
경제대국으로
협력과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어...

와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분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파키스탄과의 전통적인 군사적 연계는 긴밀하게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임.

마. 경제적 협력·경쟁관계 - 친디아 FTA 추진문제

- 중국은 1978년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개방 조치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차세대 경제대국으로서 아시아와 세계 시장에서 협력과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음.
- 양국 교역 규모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2001년 18억불에 불과하던 교역량이 2005년에 187억 불 규모로 증가했으며, 금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인 시 양국 정상은 2010년까지 400억불 규모로 늘려 나가기로 합의한 바,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인도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015년 체결을 목표로 현재 2단계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7. 10월까지 지역무역협정(R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끝내기로 합의한 바, 상호 갈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FTA/RTA협정이 2015년 훨씬 이전에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의 입장에서 인도와의 FTA가 성사된다면 서남아 수출시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내 생산기지,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통해 취약한 IT기술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겠음.
 - 인도의 입장은 다소 조심스럽고 미온적임. 중국의 하드웨어 산업을 소프트웨어 기술에 접목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익은 기대할 수 있지만, 싼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하드웨어 산업의 성장 기반 약화를 우려함.
- 양국 협력은 자원확보 분야에서도 가시적인바, 최근 일례로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는 2006. 8월 중국석유화학공사(SINOPEC)와 공동으로 미국 오미맥스 드 컬럼비아 지분 50%를 8억불에 매입키로 했으며, ONGC는 2005. 12월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와 페트로 캐나다로부터 시리아 유전 지분 37%를 4억 8400만불에 매입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현재까지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여러 경제 지표로 볼 때 비대칭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차세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리라는 가능성과 인식으로 인하여 IT산업 분야를 비롯해 상당한 경쟁관계에 있기도 함.
- 중국의 대인도 투자와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들 간에 마찰적 요인들도 나타나고 있는바, 최근 인도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인도 내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에 대한 중국 투자를 불허키로 결정, 중국계 항만 건설회사의 투자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례는 이미 알려진 사실임. 이에 따라 향후 6000억 루피(130억불) 규모에 달하는 주재국내 13개 항만시설 투자에 대한 중국기업의 참여가 어려워지게 된 바, 현재 중국에는 2000개 project에 종사하는 150개 인도기업이 있는 반면, 인도에는 50개의 중국기업 만이 활동하고 있음.

4. 고려사항

가.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비중 재검토 필요

- 탈냉전 세계전략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대외정책은 대테러 공조 체제 구축,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 대중·러 견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단계 전략에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미국은 최근 인도와의 핵합의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향후 대남아시아 전략의 교두보를 구축함에 있어 인도의 잠재력과 중요성에 비중을 두고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봄.
-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문제의 완전 해결(2004. 10)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면서 중-러-인도 3국 정상회담 개최(2006. 7), 상해협력기구(SCO) 등을 통해 미국주도의 단극 국제질서 형성에 대해 견제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일본과 기존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인도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봄. 특히 미국은 중국의 경제력·군사력 급증강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인도를 중국에 대한 균형추(a balancer)로 보고 일본과 인도를 연결하는 미사일방어

인도의
잠재력을 감안,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외교비중
재검토 필요...

(MD)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우리가 유엔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범세계적·지역적 문제들에 능동적이고 효율성 있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인도와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외교의 비중에 대한 재검토 및 중국·인도와의 안보전략 대화 적극 추진 등을 전진적으로 취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나. 지역동향 파악위한 관련국과의 협력강화

○ 미·인도 핵협력 동향

- 2005. 7월 미·인도 핵합의는 인도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함과 동시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동참케 함으로써 이란·북한 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이중기준 문제 제기 가능성 있음.
- 북한도 인도처럼 핵무기개발 후 장기간 국제적 압력을 버티기만 하면, 국제사회가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이며 평화적 원자력 협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 전달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함.

○ 중국-파키스탄-북한간 군사협력 문제

- 중국으로서는 역내 영향력 유지 및 미-인도 전략적 연합 움직임을 견제해 나가기 위해 '파키스탄 카드'를 이용할 가능성 있어 보이며, 파키스탄과 전통적인 군사협력 뿐 아니라 핵분야에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과 이에 따른 파키스탄-북한간 군사협력,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 제공의 반대급부로 파키스탄의 핵무기관련 기술정보제공 거래 가능성 상존함.
- 우리로서는 중국-파키스탄-북한간 군사협력 거래 가능성에 대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 협조체제를 통해 계속 관련 동향을 파악해 나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 인도와 긴밀 협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봄.

다. 중·인도와의 양자협력관계강화 및 친디아 FTA추진 움직임에 대비

○ 양자 경험관계

우리는
중국·파키스탄·
북한 간
군사협력 가능성을
미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 협조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상대국(1,005.8억불), 제1위 수출대상국(620억불), 제1위 흑자대상국(234억불), 제1위 투자대상국(214.7억불),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임.
- 인도는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16위 교역 상대국이며, 교역액은 2005년에 67억불, 금년에 100억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 한국은 인도의 제10위 교역상대국임.

○ FTA 협상 현황

- 우리나라는 BRICs 국가와는 최초로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도와의 CEPA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 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 중국과는 2005년부터 FTA 민간공동연구(2년간) 실시 중이며, 2007년 초부터 FTA 산관학 공동연구(1년간)를 개시 예정임.

○ 2015년 목표로 추진중인 친디아 FTA 체결 움직임에 대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이 시급함.

- 친디아 시장통합은 엄청난 파괴력이 예상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 흐름을 지켜보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친디아 FTA 출범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함. 현재 진행중인 인도와의 CEP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중국과의 FTA 산·관·학 공동연구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임.
- 중국과 인도의 경제협력이 진전될수록 인도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농산물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중국과의 FTA는 협정 추진의 필요성과 더불어 민감성도 동시에 제기되는 만큼 협상 개시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및
친디아 FTA 체결
움직임에 대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이
시급함...

라. 인도의 부상에 대비한 우리의 외교력 강화

- 우리나라와 중국·인도와의 양자 관계가 현 시점에서는 비대칭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인도가 갖고 있는 전략적·경제적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유엔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21세기 유동

적인 안보환경 하에서 범세계적·지역적 문제들에 능동적이고 효율성 있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인도 외교정책과 경제통상외교를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내에 인도업무 담당 조직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봄.

2006. 10. 27

토 론: 교 수 박흥규
교 수 김흥규
서남아대양주과 서기관 홍성욱
편 집: 연 구 원 이혜원

인도의
전략적·경제적
잠재력에 비추어,
우리의 대인도
외교정책과
경제통상외교를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

外交安保構想の産室
先進精鋭 外交官の産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우)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t.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